

2024 년도 테마전

“지금 당장 보고 싶은 노토의 문화재”

1. 와지마 스미요시 신사와 관련된 보물
2. 현지정문화재 스즈 신사 문서를 읽다



개최 취지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및 오쿠노토 호우로 인해 노토반도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든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때, 지역의 보물을 아는 것은 고향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생활 재건을 향해 나아가는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재해 상황이 널리 보도되고 현 안팎으로 많은 사람이 구조를 위해 방문해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노토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저희 박물관에서는 오쿠노토지역에 전해진 문화재를 두 가지 주제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가 노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노토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테마전 1 ‘와지마 스미요시 신사와 관련된 보물’

와지마시 후게시마치 중앙부에 자리 잡은 스미요시 신사는 후게시군의 대궐로서 널리 신앙받아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본 관의 컬렉션 중, 스미요시 신사에서 전해 내려온 가면이나 가케보토케(거울 등과 같은 둥근 금속에 조각된 불상을 걸어놓은 것), 불상을 소개합니다. 거듭되는 재난을 겪으며 현재까지 전해진 귀중한 보물을 볼 수 있으며, 중근세에 걸친 스미요시 신사 모습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다카멘 (신사의 제례 등에서 신에게 바치기 위한 가구라 가무를 할 때 사용된 코가 긴 가면으로, 전시된 것은 코가 잘려 있다) 무로마치시대. 스미요시 신사 전래.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소장



보살·천부 카케보토케 중 허공장보살 카케보토케
에도시대. 스미요시 신사 전래.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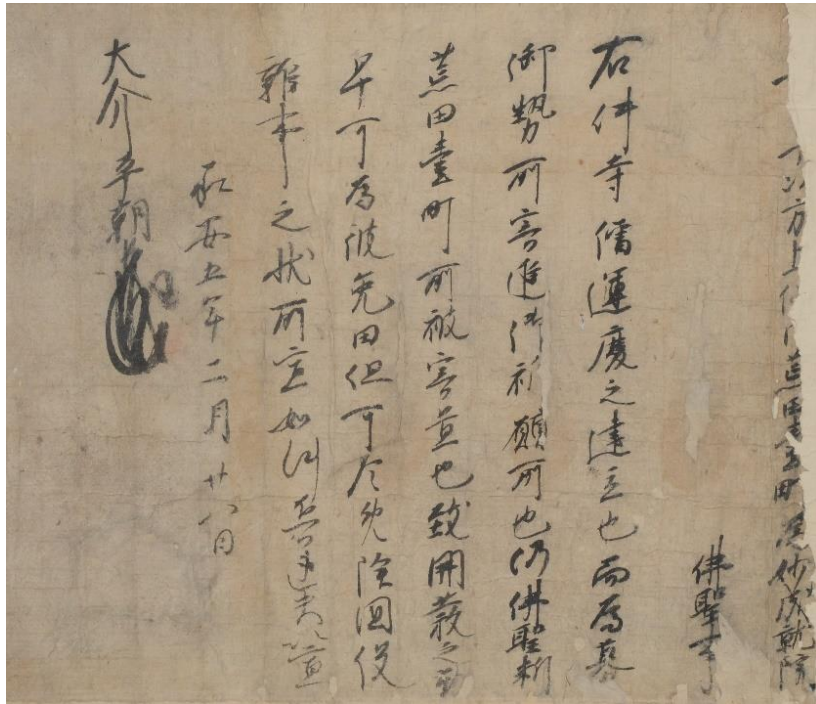


대흑천상(대흑천이라는 부처의 상)의 머리 부분
무로마치~에도시대. 스미요시 신사 전래.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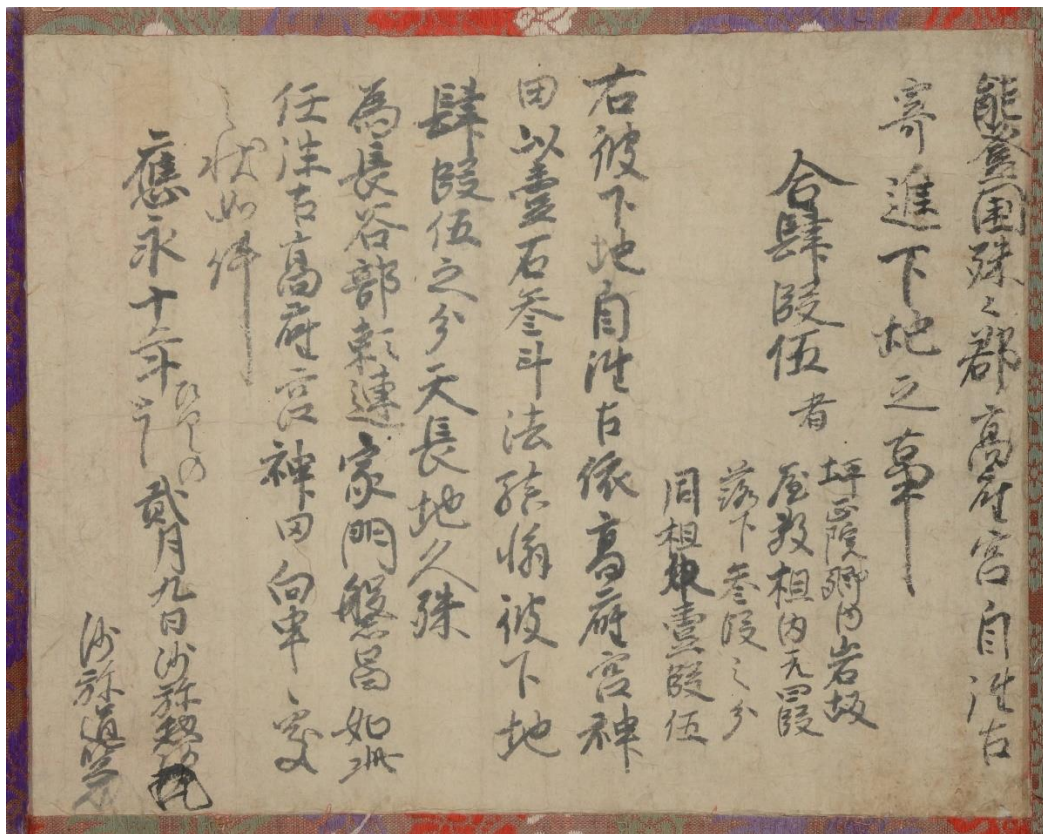
테마전 2 ‘현지정문화재 스즈 신사 문서를 읽다’

노토반도의 북동단, 스즈시 미사키마치에 위치한 스즈 신사는 오쿠노토 굴지의 오래된 신사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시카와현지정문화재인 스즈 신사 문서는 현내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 기록을 가진, 당시 노토를 통치하던 장관이 발행한 지시서인 ‘노토국사청선’ (1175년 2월 28일)과 ‘마에다 도시이에 기진장 안’ (1586년 2월 13일) 등 헤이안시대부터 에도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귀중한 고문서를 보유한 문서 집합체로, 이시카와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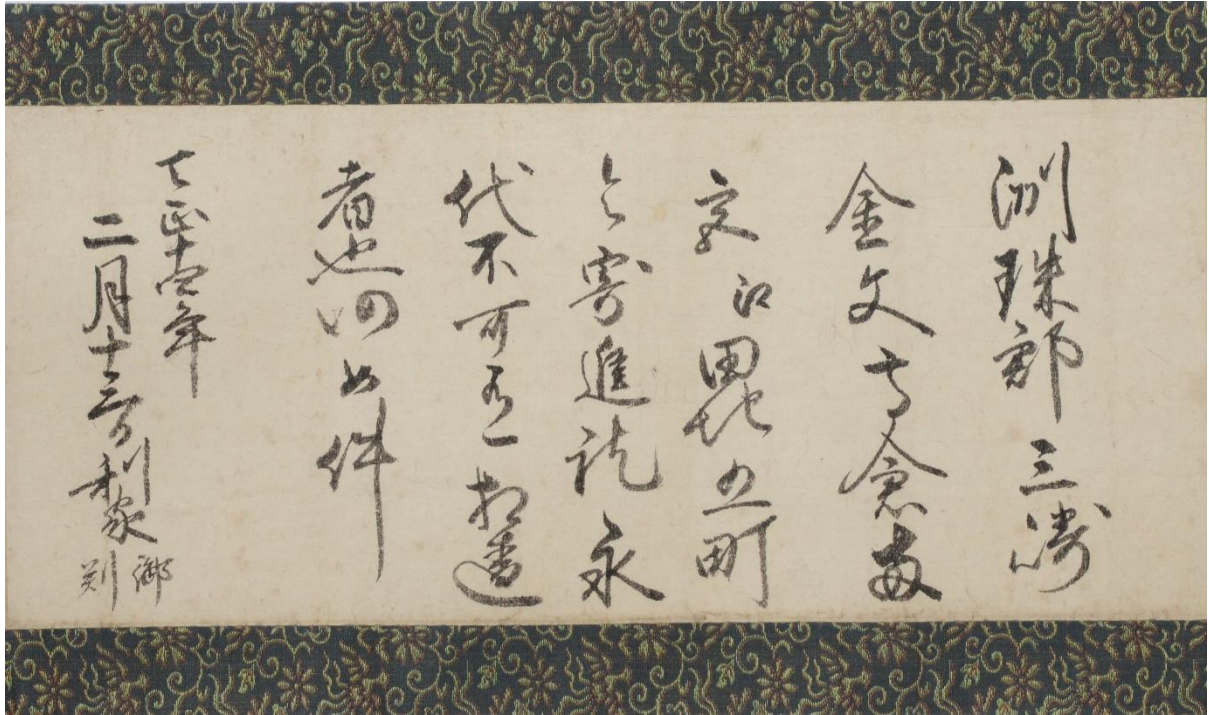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스즈 신사 문서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며 스즈 신사 및 그곳의 별당 사찰이었던 고쇼지(高勝寺, 현재는 폐사되었고 그 터로 스이운지(翠雲寺)가 이전함)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시카와현지정문화재 노토국사청선(노토국 장관의 지시서)
1175년(쇼안 5년) 2월 28일. 스즈 신사 소장



이시카와현지정문화재 사미승 소아·도칸 연서 서하장(소아와 도칸이 나란히 이름을 적은 편지)
1403년(오에이 10년) 2월 9일. 스즈 신사 소장



이시카와현지정문화재 마에다 도시이에 기진장 안 (마에다 도시이에의 기부 서장 사본)
1586년(덴쇼 14년) 2월 13일. 스즈 신사 소장

[전시 기간] 2025년 1월 4일 (토)~2월 16일 (일) **전시 기간 중 무휴**

[시간] 9:00~17:00 (전시실 입장은 16:30 까지)

[전시 장소] 특별 전시실, 기획 전시실

[관람료] 상설전 티켓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상설전 요금>

일반 성인 300 (240) 엔 /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240 (190) 엔

* 고등학생 이하는 무료

* (괄호) 안의 금액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요금,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 요금

* 장애인 수첩 혹은 '미라이로 ID'를 제시하시는 분과 동행자 1명은 무료

* 상설전 관람도 가능합니다.

* 가가혼다 박물관은 별도의 관람료가 필요합니다.

* 전자 티켓도 이용 가능합니다. (날짜 및 시간 지정 없음)

[주최]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 요미우리 신문사

[후원] 호쿠리쿠 신문사 방송, NHK 가나자와방송국